

조계종 '중단비전을 위한 정책위원회' 구성

"1994년 개혁성과가 중앙종무 기관에 한정됐고, 인력과 예산의 증대에 비해 효율적인 중무구조가 정착되지 못했다. 또 중무기관이나 중단구성원 간 권한이 집중됨으로써 중단운영 주체가 소수에 귀착되고, 다양한 의견수렴이나 참여의 폭이 한정되는 등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조계종이 1994년 중단 개혁 이후 제2 도약을 위해 기정 '중단 비전을 위한 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를 이달 안으로 발족시킨다.

6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교구본사 주지회의에서 보고된 바에 따르면, 정책위원회는 중앙종무 기관을 비롯해 본말사, 신도단체, 중앙종회, 재가종무원,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 및 단체 활동가 등을 포괄하는 종무원장 직속의 한시적 종합기구로 운영된다.

정책위원회 인적 구성은 범 중단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교구본사 주지스님 혹은

중진스님이 맡는다. 위원은 총무부장·기획실장·교육부장·포교부장(당연직)을 비롯해 종무원장 추천 5인, 중앙종회의원 5인 이내, 교구본사주지 5인 이내, 중앙신도회 5인 이내로 한다.

인사·행정 등 혁신토대 마련

6개월 한정 총무원장 직속기구...각계인사 30여명 참여

이 외에 3원 실무책임자와 교구본사 사무장, 중앙신도회, 외부 전문인력, 사무국 3명 등 30인 내외의 전문위원을 둔다.

정책위원회는 산하에 전문위원회와 상설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는 사무처장(외부인사), 팀장(중앙종무기관 차과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외부 실무자), 전담

인력 2인, 법무전문위원으로 구성된다.

정책위원회 활동기간은 6개월로 하되, 필요시 중무회의의 결의로 연장 가능하다.

정책위원회는 ▲승중진자 ▲인사제도개선 ▲재정투명화 ▲행정구조개편 ▲중무행정참여확대 ▲재가불자 실행활동 강화 등의 사

수 있도록 한다. 정책위원회 논의 과제 및 중장기 혁신과제는 6개월간 분야별 및 전체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 중무회의 및 각 의결기구에 상정한다.

한편 정책위원회는 10·27 법안진상 규명을 통해 정부의 사과와 배상으로 중단협의회 산하에 '평화의 사람' 건립을 추진한다. 평화

우선 혁신 과제

■중무행정 혁신

인사제도 개선, 선거제도 개선, 사물관리제도 개선, 지방분권, 비구니 역할 강화, 승행질서 확립방안

■중단재정 투명화

사찰예산공개제도 도입, 국고보조금 사업 감리 감독기능 강화, 불사심의위원회 구성, 스님들의 사후 재산기증제도 실시, 법인관리법 제정 및 중단 산하 법인 관리 강화

■대사회적 관계 혁신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및 사찰 문화재 관람료 개선, 선문화 대중화를 위한 지역별 선 체험 센터 지정 및 운영 지원, 문화경쟁시대에 기여하는 불교문화 재창조 및 활성화 방안, 노령사회 진입에 따른 사찰의 노인복지 역할 모색, 자비나눔 및 봉사활동 강화, 도심사찰 어린이집 건립과 어린이회 조직 의무화, 생명 존중 불교사상 구현을 위한 불교환경 활동 실천방안, 한국불교 국제화를 위한 아시아 불교국가 지원 및 서구사회 진출방안.

"총무원장 선거인단 축소해야"

조계종 일승·화엄회 소속 스님들 간담회 가져

조계종 중앙종회 정책모임 일승회 화엄회 소속 스님 10명 중 6명은 총무원장 선거인단 축소를 원했다.

일승회 화엄회 소속 스님들은 6월 24일 타워호텔에서 열린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 설문조사 결과, 16명 중 10명(62.5%)이 총무원장 선거인단을 축소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행유지는 3명(18.75%), 선거인단 확대는 2명(12.5%)에 불과했다.

선거인단을 축소할 경우 '중앙종회의원+교구본사 주지'로 하자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중앙종회의원+교구본사 주지+교구별 2~3명'안도 제시됐다.

중앙종회의원 선거는 선거권자 자격기준을 강화하자(6명, 35.29%)는 의견을 많이 제시했으나, 교구별 재적승 비례 선출(5명, 29.41%)이나 현행유지(4명, 23.53%) 요구도 적지 않았다. 현행유지는 3명(18.75%)에 불과했다.

교구본사 주지 또한 추대위에서 추대(9명, 56.25%)와 현행유지(7명, 43.75%)를 요구하는 의견이 맞섰다.

남동우 기자

"중단혼란 조장 중단하라"

일승·화엄회 성명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영담 스님의 불교중앙박물관 의혹 제기 등에 대해 조계종 중앙종회 정책모임 일승회·화엄회가 6월 28일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며 "중단을 혼란시키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일승회·화엄회는 성명서에서 "영담 스님은 무려 10여 차례 이상의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중단 내외적으로 큰 물의를 불러 일으켰다"며 "박물관 의혹제기는 그 진위여부를 떠나 수많은 중도들에게 우려를 끼쳤고 종단의 위상에 손상을 입히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조계종 직능대표선출위원회는 6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제12차 회의를 열고 덕문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덕문 스님은 85년 사미계, 90년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구제 화엄사 기획국장을 맡고 있다.

공개토론회 제안

박물관관련, 영담 스님 등

불교중앙박물관 전시실 공사 문제와 관련,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영담 스님 등이 총무원, 중앙종회, 단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영담 스님 등은 6월 28일 총 24명의 중앙종회의원들이 연명한 기자회견문에서 공개토론회를 제안하며 "절차와 방식에 대해서는 '사실을 규명할 수 있는 방식'이라면 총무원의 의견을 전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영담 스님은 "공개토론회를 통해 사실과 다르다면 중도 앞에 참회하겠다"고 밝혔다.

들에게 먼저 참회해야 한다"며 "중단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자리를 이용해 중단을 위해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종헌·종법상 처벌을 면할 길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6월22일 열린 재심호계원에 서 서울 봉은사 주지 원혜 스님에게 심판 연기 결정이 난 것과 관련, 일승회·화엄회 초선의원들이 재심호계원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6월 30일 발표했다.

초선의원들은 성명서에서 "이 사건은 3년 전에 재심호계원에 심판이 상정됐으나 이번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연기한 것"이라며 "재심호계원의 이 같은 결정은 한마디로 무소신무원칙, 계막아 이해관계에 의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재심호계원 전원 사퇴를 촉구했다.

남동우 기자

'의혹' 제출하면 조사

조사대책위 주장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영담 스님이 불교중앙박물관 공사와 관련한 공개토론회를 제안한 것에 대해 역사문화기념관 조사대책위원회(위원장 장주, 이하 조사대책위)는 6월 30일 "영담 스님이 새로운 의혹의 근거를 제출하면 조사대책위 차원에서 당연히 조사하고 대책을 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대책위는 또 "영담 스님이 교단의 중진의 위치에 있는 분인 만큼 의혹의 제기 방법도 책임 있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유철주 기자

덕문 스님 직능의원에

조계종 중앙종회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직능대표 복지 부문에 덕문 스님(의왕 용화사 주지·사진이 당 선사)가



조계종 직능대표선출위원회는 6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제12차 회의를 열고 덕문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덕문 스님은 85년 사미계, 90년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구제 화엄사 기획국장을 맡고 있다.

남동우 기자

방사선치료장비 도입

동국대 경주병원

학교법인 동국대는 6월 29일 일산불교병원 5층 회의실에서 제211차 이사회를 열고 신규교원 임용, 경주병원 방사선 치료장비 도입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방사선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주 포항 인근 암환자들을 동국대병원으로 흡수하는 한편, 첨단장비의 차별화를 통해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조용수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상생과 화합정치 구현 당부

조계종·한나라당 불사회 간담회 가져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정치권에 "상생과 화합의 정치를 구현해 달라"고 6월 28일 당부했다.

한나라당 불사회(회장 이상배) 주최로 열린 '조계종 원로대덕 스님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법장 스님은 "검은 안경을 쓰면 검게 보이고 흰 안경을 쓰면 흰색으로 보인다"며 "네가 있으면 내가 있고 내가 멀(滅)하면 나도 멀한다는 불교 가르침으로 상생과 화합의 정치를 구현해 달

라"고 당부했다. 이에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분별없는 이기심과 탐욕이 세상을 어지럽고 각박하게 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중생을 구원하고 이타심과 자비심으로 자신을 버리셨던 부처님의 큰 가르침을 되새겨야 한다"고 화답했다.

조계종은 자연공원법, 도시공원법,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 산지관리법, 농지법 개정안을 한나라당에 전달했다. 글·사진=남동우 기자

"주지소임 보면서도 참선을..."

조계종 본말사 주지연수 시작

"주지 소임을 보면서도 간화선을 할 수 있습니다. 선이 생활화되면 스님 스스로의 수행은 물론 신도들의 수행활동에도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2005년 조계종 본말사 주지연수가 시작된 6월 28일 김포 중앙승가대의 한 강의실. 서울, 경기, 강원 지역 주지 스님들을 대상으로 '국내외 수행 흐름과 간화선 수행체계의 재인식' 강의에 나선 고우 스님(봉화 각하사 선덕)은 60여명의 스님들에게 간화선 수행의 생활화를 강조했다.

고우 스님의 법문을 들던 중우 스

님(영인 서학사 주지)은 "참선을 노인복지와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 수강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틀간 진행된 연수에서는 '우리 사찰 신도 2배 늘리기' '사찰의 자가 진단 및 세무의 이해' '불교문화기획의 이론과 실제' '사회복지환경 변화에 따른 사찰의 대응방안' 등의 강의도 진행됐다.

한편, 연수는 7월4~5일(충청, 경북, 대구) 7월11~12일(경북, 경남, 부산) 7월21~22일(경남, 전라, 제주) 8월 30~31일(중진주지연수까지) 이어진다.

유철주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채수삼

110-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FAX (02)737-0698 불교포털 부디피아 www.buddhapia.com
 광고국 (02)2004-8213-6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FAX (02)737-0697 온라인서점 예시어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부처님의 약사도량인 「약사사」에서 여러분자님을 초대합니다

어느 날 예기치 않게 다가온 무서운 질병은 그 사람이 지은 전생의 카르마(업)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전생을 읽는 여자」의 저자이신 박진여 선생은 병명을 알 수 없는 원인 모를 병에 걸려 고통받고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의 전생을 읽어내어 그들에게 그 병의 원인과 영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금번 부처님의 약사도량인 저희 「약사사」에서는 박진여 선생을 모시고 원인 모를 병으로 고통받는 여러 불자님들을 위하여 작은 시간을 준비하여 마련하였습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약사사 약사여래 부처님

상담종목

원인 모를 병으로 고생하는 분.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가정사 때문에 고민하는 분.

여러 번의 종교 의식(천도나 제령)을 통해서도 해결 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

알 수 없는 靈的 현상 때문에 고생하는 분.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1동 1080-4 약사사 051)782-9386